

5월의 관리요점 5월의 관리요점

1. 이달의 날씨

이달에 들어서면 중부지방의 평균기온은 16°C 내외가 되고 기온의 일교차가 많이 좁혀져서 체란계에 아주 알맞는 기상조건이라 할 수 있겠으나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욱 현저하게 중부지방까지 장출하여 한때 전국적으로 최고기온 30°C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대륙으로부터 이동해온 고기압이 따뜻한 성질을 띄우고 한만 국경지방과 중부 및 영동지방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고압대를 자주 형성하기 때문에 맑은 날씨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자연 일조시간도 점차로 연장되어 서울지방의 경우 월초에 13시간 44분이고, 10일경에는 14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고정적으로 점등시간을 14시간으로 유지해 오던 체란계에는 일시적이나마 점등을 중단해도 지장이 없고 월말에는 자연 일조시간이 14시간 33분이나 된다.

2. 계사내의 환경 개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닭의 음수량이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0°C 때 사료섭취량의 1.~1.7배의 물을 먹게 되는데 10°C가 되면 1.7~2.0배가 되고 기온이 20°C이면 2.0~2.5배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음수량의 증가는 계사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량을 높이는 결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매우기(梅雨期)에 들어가는 이달부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사내의 공기를 건조시키는데 힘써야 한다.

①건축시에 계사의 바닥은 주위의 지면 높이보다 뜬구어 짓는다. 경사지에 건축시 바닥을 고르기 위하여 우묵하게 흙을 파낸 곳에다 계사를 지어 주위의 둔덕이 창문의 높이와 비슷하게 하는 것은 극히 삼가해야 할줄 안다.

②계사 주위에는 배수구를 길게 파서 물이 잘 빠지게 한다.

③계사내의 통풍을 방해하는 계사 주위에 있

는 초목을 짧게 깎아준다.

④급수기나 급수기 주위에서의 수분 증발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⑤계분의 수거 횟수를 늘리고 계분을 치운 다음에는 석회 등을 살포하여 건조를 돕는다.

3. 과산계의 도태

안정된 체란 양계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높은 산란율을 지속시키는데 있다고 본다. 아무리 우수한 능력을 가진 닭을 가장 알맞는 사양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산란기간이 지나면 개체에 따라 그 능력이 저하되게 마련이다.

3~4월의 산란최성기를 지나고 이달 중순부터는 기후 조건 및 지나친 생산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현상이 점차 더해 간다. 최근의 체란 양계에 있어서는 울 인·울 아웃의 형태를 채택하여 야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그 전이라도 각 체란장의 도태기준 및 산란율을 정하여 과산계나 폐계는 수시로 도태하지 않으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것이다. 점차 난가가 하락하고 각종 사료가가 오름세를 보이려는 현상이 더욱 그런 것이다.

4. 곡시듬·류코싸이토준·회충 대책

이달부터 배우기에 접어들고 또한 여러가지 곤충 특히 「류코싸이토준」 원충을 매개하는 닭겨모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사를 건조하게 하고 주위에는 수시로 D. D. T. 나 B. H. C. 기타 저독 유기인제를 살포할 것은 물론 특히 이달 이후 먹이는 배합사료에는 암푸롤·곡시덴·디오티 같은 항 곡시듬제와 류코싸이토준을 억제할 수 있는 후라졸리돈 제제·피리메타민 등과 같은 첨가제를 반드시 혼합시켜 급여할 것이다.

또한 닭이 회충의 기생을 받으면 빈혈·발육 불량·설사·이상 환우·항병성 및 산란율 저하 등의 피해를 받게 되는데 특히 중·대추기에 그 피해는 더 크다.

평면식 육추를 한 이른 병아리는 이달 중으로

5월의 관리요점 5월의 관리요점

일차적으로 구충제를 투여하고 케이지에 옮기기 전에 재차 투약해야 한다. 구충제를 투여하여 계분 중에 회충이 눈에 보일 정도면 벌써 회충의 피해를 본 다음이기 때문에 평사인 경우는 4~6개월 간격으로 구충 일정을 정하여 잊지 말고 투약한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충제 중에서 투약이 편리하고 안정성이 있으며 신용있고 값이 싼 것을 선택 사용하되 메이커의 처방량을 엄수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5. 계두 예방접종

진달부터 채란용추의 계두 예방접종에 대하여 강조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계두 예방접종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닭이나 병아리는 이달 중으로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상용되고 있는 예방약은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두독과 다른 계두독이어서 1회 접종으로 종신 면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미리미리 접종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이달부터 낳는 부로일러용 병아리는 1~2주령시에 계속 계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로일러에 계두가 발생하면 발육 부진·사료효율의 저하·기타 질병의 병발 등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6. 부로일러의 자동 분리 사육

일반적으로 부로일러 사육시 무감별로 하여 한무리로 키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암놈과 숫놈을 분리하여 사육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더 나아가 부화장에서 부로일러용 초생추를 출하할 때 암놈과 숫놈을 분리하여 초생추 가격을 잘 조절하면 사육자는 경영면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다.

①한무리의 체구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우선 사료섭취를 고루 할 수 있다(표1 참조).

<표 1> 암·수의 주별 체중·사료요구율

| 구분 | | 주령 | | | |
|------------|--------|------|------|-------|-------|
| | | 4 | 6 | 8 | 10 |
| 숫 | 체 중(g) | 476 | 879 | 1,312 | 1,792 |
| | 사료요구율 | 1.62 | 1.93 | 2.02 | 2.24 |
| 암 | 체 중(g) | 420 | 741 | 1,071 | 1,439 |
| | 사료요구율 | 1.70 | 1.87 | 2.18 | 2.31 |
| 암 수체중의차(g) | | 56 | 138 | 241 | 353 |

※ 사료 요구율은 동일 조건 아래서 동일 품질의 사료를 급여한 것임.

②균일하게 육성되기 때문에 출하 개시일로부터 출하 마감까지의 기간이 단축된다. 다시 말하면 빨리 울 아웃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③양질의 부로일러를 생산할 수 있다.

숫컷만 선택 사육하였을 경우 체형이나 육질이 암컷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품질 향상이란 전제 아래서 고려될 문제이다.

④사료효율을 높일 수 있다. 부로일러 사육에 있어서 고농도 사료의 이용성이란 한 시험 보고에 의하면 암컷에 있어서는 4~6주령 사이의 단기간에 고농도 사료의 이용성이 좋았으나 숫컷에 있어서는 장기간에 걸쳐 고농도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더 유리했다고 한다.

임 병 규

<P. 68에서 계속>

여야 되고 또 사료로서는 항생물질 등을 첨가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본병의 병원체인 포도상구균에는 Penicillin이나 Sulfa제의 응용도 유효하며 또 병소부에는 이 포도상구균 외에 외계 잡균의 혼합감염도 많으므로 항균성이 넓은 Terramycin이나 Oleomycin 등의 항생물질의 응용도 매우 유효하다.

이와 같은 약제를 사료 또는 음료수에 섞어 투여함이 적어도 병추의 병세를 억제시킨다든가 또는 치유시키게 되는 것이다.